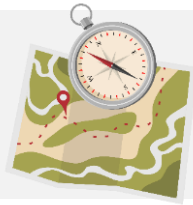


2023 EMERiCs·AIF 신흥지역 체험기 공모전 당선작 인도남아시아 권역



잘못 탄 기차가 데려다 준 파키스탄

이서원

스물 넷, 나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파키스탄에서 11개월간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다. 내게 파키스탄의 첫인상은 모스크도, 히잡을 쓴 여인들도 아닌 나를 향한 수많은 눈동자였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자마자 맞닥뜨린 엄청난 인파에 얼마간 동물원의 원숭이가 된 기분을 느껴야 했다. 공항에는 지방에서 올라온 현지인이 많아서 유독 심했다는 건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다.

수도인 이슬라마바드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외국인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치안이 불안정하여,

관광객을 제외한 외국인은 대부분 이슬라마바드 내에서만 생활한다. 그렇기에 다른 지역을 방문하게 될 경우, 호기심 가득한 현지인들의 시선을 피하기란 쉽지 않다. 파키스탄은 히잡을 착용하는 게 강제되지는 않지만, 머리카락을 가리고 다니는 여성이 대부분이다. 그 때문인지 히잡을 쓰지 않는 외국인 여성에게 더욱 이목이 쏠림을 느꼈다.

파키스탄은 이슬람 국가다. 기독교나 힌두교 신자도 소수 존재하지만, 인구의 97퍼센트가 넘는 이들이 이슬람교를 믿는다. 사람들은 기도할 시간이 되면 그곳이 어디든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엎드려 기도한다. 어디를 가든 기도를 위한 작은 카펫이 준비된 것을 흔하게 볼 수 있다.

규율을 엄격히 지키는 남성의 경우, 머리에 터번을 두르고, 여자와는 악수도 하지 않는다. 경찰, 군인은 물론이고 청소부, 식당 종업원, 정원사 등의 직업도 남자가 도맡아 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고등교육 역시 남성들의 전유물로 취급된다. 이곳에서 사귀게 된 파키스탄 친구는 현재 대학에 다니고 있지만, 막상 졸업 후에 전공을 살려 일할 기회가 있는지 걱정이라고 털어놓았다. 그녀와 얘기하다 보면 파키스탄에서 여성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얼마나 적은지 새삼 깨닫게 된다.



파키스탄인들과 생활하며 느꼈던 점은, 이들이 대체로 느긋하고 낙관적인 성향을 가졌다는 것이다. 더불어 외국인들에게 무척이나 친절하며, 손님을 대접하는 것에 진심이다. 곤경에 빠진 이들을 돕는 것 역시 마다하지 않는다. 가령 길에서 차가 고장 날 경우, 삼시간에 여럿이 몰려와 도와주는 경우가 더러 있다. 하지만 이런 이들의 성향이 마냥 반갑게만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다. 특유의 낙천적이고 여유로운 성격 탓에,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고, 불가능한 것도 일단은 모두 된다고 말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들이 버릇처럼 쓰는 말 중에, '인살라'라는 말이 있다. 해석하면 '신이 허락하는 대로'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이 말의 진정한 뜻은 'Next Time'이다. 오죽하면 비즈니스 상황에서 상대가 인살라를 꺼낼 경우, 그 일은 단념하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인살라만큼이나 이들이 많이 쓰는 'No problem'은

여기선 'Many problem'을 뜻한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처음에는 이러한 이들의 행동이 답답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내가 먼저 인살라를 외쳐버린다. 인살라, 그래 어찌겠는가. 신이 허락하면 되겠지.

이곳에서는 어딜 가나 녹색의 풀과 나무, 덩불이 우거져 있다. 심지어 수도에서 가장 번화가라는 시내 중심지를 가더라도 도로 양옆 사이로 나무들이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는 걸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별 좋은 날 차를 타고 거리를 지나갈 때면 풀숲에 누워 낮잠을 청하는 사람들과, 그 옆에서 한가로이 풀을 씹는 염소들이 스치는 건 덤이다.



하지만 이런 풍경과는 반대로 대기질은 세계에서 가장 안 좋은 편에 속한다. 파키스탄에서 2번째로 큰 도시, 라호르를 방문했던 적이 있다. 라호르는 2022년 세계에서 가장 대기오염지수가 높은 도시로 뽑혔던 곳이다. 실제로 라호르 시내를 겨우 십여

분 걸어 다녔을 뿐인데도 목이 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오토바이의 시꺼먼 매연과 흙먼지가 뒤섞인 도로의 뿌연 공기에 자동차의 창문을 전부 꼭 닫은 채 지나가야만 했다.



선진국이 부담해야 할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개도국들이 오롯이 지고 있다. 라호르의 뿌연 공기는 우리들이 부린 욕심의 잔재인 것 같아 거부감보다는 속죄하는 마음이 더 앞섰다. 파키스탄은 본래 '맑고 깨끗한 나라'라는 뜻을 가졌다. 하지만 그 명칭이 무색할 만큼 탁한 공기는 내게 왠지 모를 죄책감으로 남았다.

파키스탄의 열악한 상황과는 대조되게, 나는 어쩌면 한국에서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지내고 있다. 외교 단지 내의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운전기사님께서 출퇴근을 책임져 주신다. 살 게 있으면 백화점에 가서 쇼핑하고 맛있는 게 먹고 싶을 때는 언제나 식당에 간다. 나는 그저 점심으로 먹은 치킨 요리가 입맛에 안 맞아서 힘들고, 업무가 자꾸 미뤄져서



힘들고, 석회 물에 머릿결이 뻣뻣해져서 힘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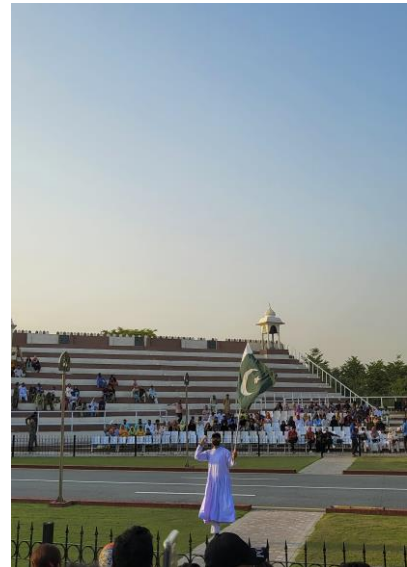
한 달 일해서 받은 봉급으로 한 달 치 밀가루를 사면 동이 나버리는 노동자들과, 월급보다 더 높아진 전기세에 거리로 쫓아져 나온 시민들. 여럿이서 찢고 한 그릇(병아리콩 수프)에 차파티(전병처럼 얇은 빵)만 연이어 주문해서 배를 채우는 이들, 땀방도로 한가운데에서 아이를 업고 구걸하는 여인들과 제대로 된 안전 장비도 없이 건물 외벽에 매달려서 창문을 닦는 인부들, 작은 손 가득 꽃 팔지를 쥐고 팔러 다니는 아이들.

그들에게 내가 얘기하는 힘들은 기만이고, 사치일 것을 알기에 더욱 조심스러워진다. 선의로 건넨 마음이 그들에게는 마냥 가볍게만 느껴질까 봐.

이곳에서 일하며 만나게 된 파키스탄인들 대부분은 작은 선물에도 고마워하며 낯선 나를 배려해 주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마음씨만큼이나 맑은 그들의 눈동자에 행복과 여유가 깃들 날이 조만간 오기를 바란다.

잘못 탄 기차가 목적지에 데려다준다는 오래된 속담이 있다. 파키스탄행이 처음부터 오롯이 내 의지였던 건 아니었다. 하지만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어느샌가 내게 이곳은 낯설고 두려운 곳이 아닌, 정겹고 낯익은 나라가 되었다.

80년대 영화에서나 봤던 승용차와 화려한 문양이 그려진 트럭이 더 이상 새롭지 않고, 5명씩 다닥다닥 붙어서 오토바이를 함께 타고 가는 모습이



놀랍지 않다. 기관총을 들고 검문을 위해 차를 멈춰 세우는 경찰들이 무섭지 않고, 특히 2시간씩 늦어지는 행사가 더는 답답하지 않다. ‘앗살라말레이 쿼’이라 건네는 무슬림식 인사가 어색하지 않고, 손을 가슴에 가져다 대는 그들의 화답이 이제는 낯설지 않다.



내가 파키스탄에서 배운 건 장담할 수 없었던 선택이 때로는 나를 원하는 곳으로 이끌어 준다는 것이었다.



나는 이제 내가 도착하는 모든 곳이 처음부터 내 목적지였을거라고 믿는다.

첫 독립, 첫 직장 생활. 부끄러운 실수들과 소중한 인연으로 범벅이 된 이곳을, 나는 오랫동안 여러 빛깔로 추억하게 될 것 같다.



본 원고는 EMERiCs와 AIF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후원하는 신흥국 체험 수기 공모전 수상작입니다. 저작권 정책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제 3유형’에 따르며, 본 원고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무단 전재·변경·제 3자 배포 등을 금합니다. 또한 본 원고를 인용하시거나 활용하실 경우 △출처 표기 △원본 변경 불가 등의 이용 규칙을 지켜셔야 합니다. 본 원고에 대한 글, 그림, 사진 등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 해당 원고의 의견은 KIEP 및 EMERiCs, AI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에 삽입된 이미지는 모두 저자가 직접 촬영한 것으로 저자의 동의 없이 사용을 금합니다.

